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race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도여 다 함께(찬/새29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태원 집사 2부/다무라고조 장로 3부/박상근 장로 4부/윤여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편곡 황광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6: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역대하 7:1-3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9) 스가랴 강해 **하나님의 병거가 달리면...**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 아난(1) 하늘로 부터 내려온 불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음성 외에는(찬500/새446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밥상 공동체

Meal Table Communi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가 한국에서 모 신학교 총장님과 새로 사귀 교수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교수님 부부가 결혼기념일이라 축하해 드리는 의미도 있고, 나도 논문을 위한 프로포절을 마친 후라 겸사로 근사한 식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보리굴비집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낯선 음식이라 기대하며 갔는데, 찬물에 밥을 말아 굴비를 한 점 올려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나게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맛이 우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굴비를 찬물에 밥을 말아 같이 먹을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교수님은 굴비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은 어려서부터 버린내에 보리굴비를 못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식당을 가자고 하시지...” 교수님의 변명은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자기와 결혼 후 보리굴비를 먹지도 못했어서, 오늘이라도 먹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밝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보리굴비를 먹어 본지가 몇 년 만인가 되뇌며 맛있게 드십니다.

음식은 같이 즐길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배려로 보리굴비집에 왔지만, 굴비를 못 드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같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밥)상을 베푸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편 23편). 그 밥상을 같이 즐길 수 없다면 그 밥상 공동체의 흥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아무리 내 입에 맞는 식사를 맛있게 하여도 같이 누릴 수 없는 자가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밥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즐길 준비가 되어있나요? 식욕이 있으시나요? 사모함으로 말씀의 밥상을 받을 의욕이 있으시나요? 예배 후 셀모임에서 디저트를 맛있게 드실 기대가 있으시나요?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들 맛있게 먹는 보리굴비를 혼자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방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며 의미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하듯이, 사모함의 기도는 말씀을 맛있게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저희를 구별하며 주옵소서!”

I had an opportunity to have a meal with a president of a seminary and a professor I had just met. It just happened to be the professor and his wife's anniversary, and I had just finished my thesis proposal. We wanted go to a fancy restaurant, but ended up at a barley gulbi(dried croaker) house. I went with great expectation of a delicious food. I was told to put cold water in my rice bowl and eat with a piece of the fish. Initially I thought it was a strange way to eat. Then the more I ate, the tastier it became. It was a strange combination. I was curious how they discovered eating dried croaker with rice in cold water in the olden days. While I was enjoying my fish, I noticed that the professor sitting next to me had not touched his fish at all. I found out that, since he was young, he could not eat barley dried croakers because of fishiness. “Then, why didn't you insist on a different restaurant...” Professor's reasoning was that it was their wedding anniversary. His wife hadn't had a chance to eat barley croaker since they got married. He wanted his wife to enjoy it today. His wife smiled brightly and said she was very happy. She ate barley croaker that she couldn't enjoy for years

I think it's evident that food tastes best when we enjoy together. It brings happiness. Although we came to the barley croaker house for his wife. It wasn't pleasant to see the professor not able to enjoy. In the same way, grace is blessing from God that we ought to share. Bible is God's blessings spread out on a “meal table” for us (Ps 23). If we were not able to enjoy the meal table together, then the joy of a meal table community disappears. Enjoying God's blessing resembles sharing a meal together. No matter how delicious a meal is, if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was someone who cannot enjoy the meal, then the meal is not enjoyable.

Let's share the meal table of His Word today. Are we ready to enjoy together? Do you have your appetite ready? Do you have the desired hearts to receive a meal table of His Word? Do you wish to have a delicious dessert of sharing after the worship with your cell group? Blessings of His grace is different for each of us. But if you did not receive any blessing, then it reminisces the image of you being the only one who does not enjoy eating the barley croaker while everyone else does. For the sake of others, I must receive His grace. That is the meaning of a community and my responsibility. As appetite is associated with food, prayer of hope is the appetite to receive the Word. “May God set us apart as a community of holy Word today!”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하나님의 병거가 달리면...

(속 6:1-8)

1.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자유의 민주주의 나라에 사는 우리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을까요?

2. 구리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비전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 1) 말과 병거(시 104:1-3)
 - 2) 두 구리 산(왕상 7:13-22, 왕하 23:11)
 - 3) 검은 말(6절)
 - 4) 흰 말(6절)
 - 5) 어룡진 말(6절) = 건장한 말(7절)
 - 6) 붉은 말(2절)

3. 8절 "...내 영을 쉬게 하였으니리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막 1:1 '복음'과 연관시켜 설명해 보십시오. (참고/ 사 52:7, 골 2:15, 고후 2:14, 롬 8:37)

4. 하나님의 말과 병거가 나아간 곳에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경을 통과하여 길이 열렸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참고/ 잠언 5:21, 요 1:23)

적용하기



Father's Day 특집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고 천국으로 가신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반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인연으로 만나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넘치는 사랑과 넉넉함으로 자녀들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셨으며 '넌 할 수 있어'라며 늘 자신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도 열심히 섬기셔서 성도들에게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성도께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의논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만능 재주꾼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셨던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고 늘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의논드리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니



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Father's day에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 더욱 그립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뵈는 그 얼굴로 마중 나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승호 집사



어린 시절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교회에 다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버지께서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교회에서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열심히 섬기시는 아버지를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뭐든지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그리고 힘센 천하장사 아버지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든든한 백이었고 이제는 친구이자 가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이민 생활을 하시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이민 1세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지 이제 와서야 어렵פות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을 깊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배운 집사

신임 목회자 소개

김재은 전도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베델교회는 11년 전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와서 등록하고 섬기게 된 교회입니다. 새가족 교육 후 셀식구를 만나고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베델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베델교회에서 이제는 아기학교 디렉터로서 섬기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2. 전도사님의 신앙 배경을 알려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독실하신 크리스천인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며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재조명시키셨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3. 전도사님 가정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가정은 남편 김집사와 12학년이 되는 딸 세린이와 저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남편과는 어릴 때 기도 모임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함께 성가대에서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딸은 지금은 K-1에서 TA이자 프레이즈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헤쳐 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 베델에서 앞으로의 비전과 각오를 나눠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 말씀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충실한 종의 자세로 일하며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훈련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베델 제자훈련

제자로 거듭나는 삶



제자 양육반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전도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주 1대1로 양육을 받고 제 양육을 담당하신 집사님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였습니다. 같이 양육반을 시작한 남편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삶의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주 외우고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시고 항상 기다리신다는 것과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있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채워 주려고 하신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씨디 민 집사(양육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감을 위하여 짠맛을 잃지 않고, 밝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셀 식구들과 함께 시작한 바이블 클럽의 성경 일독은 홀로 성경을 읽을 때와 달리, 정해진 구절 안에 서로 은혜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클럽'의 성경 일독은 저희 셀모임과, 저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더 풍성한 나눔이 이어지도록 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현 집사(바이블 클럽)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오랜 생각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도한다는 것이 두려워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격려하시던 목사님과 훈련자 집사님 덕분에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성령님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복음제시를 통해 저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그 아픔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안주하던 제게 '내 너를 위하여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고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이 과정을 마쳐야겠다고 다짐하니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훈련과정이 신기하게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복음의 내용과 예화를 통하여 이제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던 전도에 대한 골격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자신감이 생길 것을 간구하며 현장 전도에 임하였고 마치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오히려 제가 전도 대상자가 된 것 같이 저의 신앙을 점검 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제게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야 시작의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 여정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분과 같이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떠올려지기를 소원 해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혜경 집사(전도폭발)



여섯 분의 낯선 집사님들을 만나고, 전년도 제자반을 마친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이드에 따라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저녁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토요 험시바예배 후에는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군인처럼 훈련받아 세워지는 거라 하셨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며 함께 완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은 설교와 성경을 읽으며 얻은 단편적인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반에서 교리를 배우고, 관련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조금 더 하나님과 인간(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저는 지정의(知情意), 행동 모두가 타락한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저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뺄 수 없음을 다시 감사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제자반을 마치며 함께 한 집사님들과 매일 저녁 서로를 위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니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서로 언제든지 기도 부탁을 하면 나의 기도처럼 온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생겼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공동체를 선물처럼 갖게 하셨습니다에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집사(제자반)



한어 중고등부(CIM) 졸업식

졸업을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교회에 출석하며 학업을 수행하느라 들인 각고의 노력과 수고에 부모와 선생님의 심정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를 전합니다. 결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혼과 생각과 육신을 주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지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기도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우영 장로(교사)

저는 2021년 초에 고모의 추천으로

교회를 처음 접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떨리고 제가 다닐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평상시에 쓰는 언어나 모습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제 편견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번 해 주시는 '해봐야 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나 신앙이란 말을하면 괜히 움츠러드는데, 와보니 사랑이 담긴 곳이란 것이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총 3번 갔는데, 수련회에 가서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예배 중 간증을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시간과 공동체와 함께 한 행복한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의 입장에서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사시지외(四時之外)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사계절의 바깥이라는 뜻인데요, 즉 시간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시간을 넘어선 그 모든 순간순간을 느끼고 가슴에 새기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졸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CIM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준서 형제(12학년)



영어 중고등부(BYM) 연합예배

복음을 이어가는 예배 중



6월4일 주일부터 영어 중고등부(BYM) 학생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2부(오전 9시)와 3부(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채플에서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다니엘 전도사님의 기도 인도로 예배는 시작되고 이어서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 학생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후 매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대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도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말씀 후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

도의 시간 또한 감동이 가득한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비전 채플 안에서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는 학년별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나뉘어 각 선생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그룹 공부 시간은 각 선생님이 전도사님 말씀 중심의 나눔을 가진 다음에 지난 주간 동안의 QT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질문, 주중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나누며 도전받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초중학교 때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음의 시작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복음이 시작되고 이들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제 사춘

기를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힘들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이 절실히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예배 현장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래의 예배 시간과 소그룹 시간을 살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예배와 소그룹 시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부 예배(오전 9시-10시 15분)
소그룹(오전 10시 15분- 10시 40분)
- 3부 예배(오전 11시- 오후 12시 15분)
소그룹(오후 12시 15분-12시 40분)

Sherry Kim(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제10회 유영, 야훼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제10회 유영, 야훼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프로그램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매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장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장학 특별헌금'으로 계속해서 장학사역을 확장하였고 특별히 기탁받은 유영 장학금(1만불)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야훼 장학금(1만불)을 목회자 자녀를 위하여 따로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크리스천의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교회 행정 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 ▶ 신청 대상: -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예정/ 풀타임 대학생 대상 베델교회 교인이거나 교인의 자녀
- 기독교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
- 고등학교 G.P.A 3.3이상, 공인된 대학 2023년 가을 입학 예정 고등학생
- 공인된 미국대학 재학 중 GPA 3.0 이상, 지난 학기 풀타임 대학생(Undergraduate)
- ▶ 선정 기준: 신청서, 학교 성적, 에세이, 추천서 등을 검토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섬김의 자세를 기준으로 장학금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7월)	6/25: ①부-김진환	②부-선상균	③부-왕동원	④부-이서원
	7/2: ①부-김학남	②부-윤주원	③부-이국선	④부-이효민
	7/9: ①부-마상오	②부-이 청	③부-곽태일	④부-권앤디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24: 김석열	7/1: 김윤근	7/8: 김정우B	7/15: 김정범
강단꽃(6,7월)	6/18: 김유민, 황은아	6/25: 강재형, 김진희, 황순현	7/2: 림학철, 박세환, 조궁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장미순(한외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베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수요예배는 박경철 목사의 '구원의 관점(The Perspective)'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오늘 3부 예배 시에 1년 또는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반, 양육반, 영어 양육반, 청지기 재정교실, 바이블클럽 16주, BAM훈련,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후 기념촬영이 있으니 많은 참석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회 유명, 아훼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신청 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장학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 주시면 됩니다.

◆ 주차 안내

현장 예배에 불편하시더라도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봉사자 및 기타모임을 위하여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주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K-5 여성성경학교(VBS)

영유아부 VBS가 지난주에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6/21-6/24 4일동안 K-5(킨더부터 5학년) VBS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K-5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일시: 6월 21일(수)-23일(금)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6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15분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 유년부 주일 예배 교사와 소망부 VBS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소망부 섬김/문의: VBS,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코트야드에서 Sign up해주세요.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베델 콰이어 단원 모집

베델교회의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섬기는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형직 목사 (909)964-2537, 오은옥 권사 (714)615-7096

◆ 베델 일본어예배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베델 일본어예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갈 새 걸음의 비전 안에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6월 25일(주일) 오후 1시 15분, 임마누엘 채플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BYM 중고등부 "Overflow" 여름 수련회

올해 영어 중등부와 고등부는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사인업은 다음 주일(25일)까지 받으며, 부서 카카오톡으로 공지나간 form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8월 7일(월)-10일(목), Forest Home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찬양 사역자 김도현 초청 콘서트

'성령이 오셨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예수' 등의 명곡을 작곡한 김도현 형제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 온두라스 단기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

2,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시원한 레모네이드와 맛있는 쿠키를 판매합니다. 학생들이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받는 기회와 경험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6월 18일(주일), 코트야드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태국 단기 선교팀원 모집

8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태국에서 의료, 안경, 어린이 VBS 등의 사역으로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연조 집사 (714)333-6724

◆ 축하해 주세요

이태형 장로/이선옥 권사의 딸 Sandra Lee와 Leo Wong의 결혼식이 6월 8일(목)에 있었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When God's Chariot Runs ...

(Zech 5:1–11)

1. Israelites who were rebuilding, after being freed from captivity in Babylon, were still not free. Even for us, living in 21st century in a free democratic society, there are still parts that are not free. What are some of those parts?

2. The vision of four chariots coming out between mountains of bronze/ Let's organize symbolisms of this vision.
 - 1) Horse and Chariot (Ps 104:1-3)
 - 2) Two bronze mountains (1Ki 7:13-22, 2Ki 23:11)
 - 3) Black horse (v.6)
 - 4) White horse (v.6)
 - 5) Dappled horse (v.6) = Powerful horse (v.7)
 - 6) Red horse (v.2)

3. What is the meaning of "...my Spirit rest..." in v.8? Explain in connection with Mark 1:1 'gospel'. (Ref: Is 52:7, Col 2:15, 2Co 2:14, Ro 8:37)

4. God's grace opens ways to restore where God's horses and chariots have gone. Share your experience of roads opening up through adversity. (Ref: Prov 5:21, Jo 1:23)

Apply to Life

